

그것은 모두 착각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커피가 문제일 것이라 생각했으나, 커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단지 얼음 동동 띄어진 맑고 검은 커피였다. 그렇다면 따로 요청한 냉수가 문제였을까? 레드벨벳 케이크였을까? 시야가 점점 흐려져온다. 그들이 무엇에 약을 탔건 더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였다. 나는 혼곤한 생각 속에서 해답을 찾아 헤맸다.

모든 일이 원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이룬 성공한 ceo에서 다시 모든 것을 이뤄야 하는 시작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되어 사라졌다.

불만을 갖고 있는 내부의 소행이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눈을 떠보니, 꿈을 꾸는 듯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익숙한 방의 풍경과 푸근한 이부자리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불을 박차고 나와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왔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을 신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빠아아아앙’

우렁찬 자동차 경적소리와 함께 떠오른 몸은 이내 시멘트 바닥으로 처박혔다.

“대표님!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대표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119 부르겠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시야가 점점 흐려져온다. 이제는 익숙한 느낌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같은 곳에서 눈을 떴다. 현실과 꿈 속의 경계.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다.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찬찬히 주변을 살폈다. 확실하게 그 시절 그대로였다. 방금 그 상황은 뭐였을까? 진짜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모습조차 지난 날 그대로였다. 그러다 보게 되었다.

★★★★☆

목에는 별이 5개 있었다. 하나는 지워진 듯이 흐릿했다. 이것이 어느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으로 문질러도 소용이 없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을 뿐이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화목록을 살펴보았다. ‘엽’이라고 저장된 이름과의 통화 기록 16회. 누구일까. 갤러리에 들어가보니 누군가와 찍은 셀카가 가득하다. 아, 이 남자가 엽인가? 왜 내 기억 속에는 그가 존재하지 않을까. 도통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다.

확인한 현재 시간은 2014년 1월 14일 오전 10:30분. 내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의 바로 10년 전이다. 통화 버튼을 눌러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수신호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달각'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화가 나 격양된 목소리.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목소리는 음파 소리와 함께 사라졌고, 핸드폰을 확인하자 사진도 하나씩 사라져갔다. 의문투성이었지만, 일단 잠을 청해보기로 했다.

일어나도 변한 것은 없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생각도 많이 하고, 주위를 경계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10년 전의 일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다.

네트워크 파티가 있어, 파티장에 참여하게 되었고, 어디서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인지를 하지 못했다. 커피, 레드벨벳 케익, 물이 있었다. 불안감을 느낀 채로 들어온 파티장이었고, 인지를 한 순간에는 이미 늦었고, 눈이 스르륵 감겼다.

첫번째 회귀에선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본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

목에 있던 별이 하나 더 흐릿하다. 혹시 이것은 개수를 뜻하는 것일까?

같은 곳 같은 이부자리. 나는 이전에 사라졌던 엽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모든 일은 그와 연관이 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휴대폰에 저장된 페이스북을 키자 엽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확인됐다.

히야대학교 수석 연구원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개가 나와있었다. 뇌 과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듯한 내용의 게시물들이 나와있었다.

문득 기억을 되살려보니, 회귀 전에 봤던 글자가 “기○너.. 삭제 60% 완료”였듯 했다. 생각을 멈추고 다시 폰을 보니 이번에도 그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듯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엽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박혔다.

그가 발표한 논문들을 살펴보았다. 전부 ‘사망 전 기억 상실 약물 주입 시, 회귀 후 기억 복구 가능성에 대한 연구’였다. 나는 실험체였던 듯하다. 역장이 무너져 내린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의 피나는 노력. 말단 사원에서 CEO에 오르기까지의 그 잠 못 이루던 날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결국 하나의 실험 대상에 불과한 것을.

그렇다면 나는 이 기억 속에 영원히 갇힌 것인가? 돌연 압도해 오는 두려움에 숨이 막혔다. 공

황이었다. 탈출해야 한다. 나는 그대로 창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말짱히 또 다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었다. 거울을 보자 목에 있던 별이 이번에는 두 개나 사라져 있었다.

왜...?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죽음이므로? 무서움에 틀어막힌 울음이 다시 토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찾아 '엽'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어디 있어?"

".."

이번의 상대방은 아무런 답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살려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만나고 싶어. 어디 있어. 당신."

"...별아. 우린 만날 수 없어."

"왜?"

"나는, 죽었잖아."

"뭐"

"이제, 마지막 기회도 끝이 나고 있어. 내 기억은 지우기로 했잖아. 이제, 나로부터 벗어나 너의 삶을 살아 가."

돌연, 거울을 보자 떨어진 눈물이 별에 닿아 모든 별이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 '엽'이 2024년 오늘에 죽었다. 나는 그가 없는 삶을 견디지 못해 기억을 지우는 선택을 했다. 이제, 그는 내게서 사라진다.